

‘사고 온상’ 차량공유 렌터카 ‘브레이크가 필요해’

음주상태에서도 앱으로 렌트 가능 광주서 대학생이 만취운전 사고 렌터카 빌린 고교생 사망사고도 ‘쏘카’·‘그린카’ 등 비대면 대여 성행 광주 4년간 렌터카 사고 1639건 사고·범죄 빈발해 대책 마련 필요

일상으로 파고든 ‘차량 공유서비스’가 사고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만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차량대여가 가능하다 보니 미성년자 또는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대형마트 3층 옥외주차장에서 대학생 A(26)씨가 렌

터카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주차 차량은 충격으로 1m가량 밀려나면서 주차장 가벽(판넬)과 부딪혀 1m 길이의 파편이 1층으로 떨어졌다. 파편 추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차량이 추락하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으나, 앱을 통해 렌터카(카셰어링 차량 공유)를 빌려 1시간여 동안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운전면허를 취득해 1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에 “운전 연습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도 문제다. SNS를 중심으로 카셰어링 앱 아이디를 팔거나 불법 렌트를 도와주겠다는 글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선 고교생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주행 중이던 SUV 차량과 충돌

해 렌터카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렌터카는 올해 초 면허를 딴 B(19)군이 빌렸으며 불법 유턴을 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0월에도 화순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앱을 통해 타인의 계정으로 차량을 빌린 고등학생 C(18)군이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 중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기도 했다. 계정 명의자인 3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3만원을 받고 앱 계정을 넘겼고, 이 브로커는 대여비 명목 18만 원을 받고 이 계정을 C군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이후 ‘쏘카’, ‘그린카’ 등 비대면 차량 공유서비스(카셰어링) 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음주운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등 사고 및 범죄에도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셰어링은 주력거나 변화가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를 앱을 이용해 빌려가는 방식인데, 앱에 운전면허증만 등록하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렌터카 사고는 해마다 450여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1639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915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55건, 2020년 456건, 2021년 43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291건의 사고가 났다. 사상자 수도 2019년 833명(사망 1명), 2020년 868명(사망 6명), 2021년 715명(사망 3명)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499명(사망 4명)의 사상자가 났다. 코로나 이후 무면허 렌터카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2021년 발생한 전국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460건 중 미성년자와 20대의 사고가 63.9%(934건)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춘식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렌터카와 차량공유 업체들이 면허증만 확인하고 차를 쉽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운전경력증명서도 때는 등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량을 빌리는 사람 또한 책임감 있는 교통운리를 갖도록 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o@kwangju.co.kr

‘1인 2역’ 행세 하며 고령 농민들 상대 사기 합평경찰, 50대 검거

1인 2역 행세를 하며 고령의 농민들에게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합평경찰에 따르면 70-80대 고령의 농민 11명을 상대로 농산물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51)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A씨는 본인을 광주의 대형 유통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농민들이 수확한 쌀, 고추, 들깨, 콩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다고 속인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농민들에게 유통업체 경리과장 행세를 하며 “다른 업체에서 결제가 늦어져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이었던 A씨를 8일 구속하고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 도심 집단 난투극’ 조폭 31명 추가 기소

광주지검 2년만에 이례적 브리핑 미성년 6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도심에서 다툼을 벌이고 보복폭행을 위해 전면전을 준비하려던 조직폭력배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23)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16)군 등 미성년자 6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번 검찰 브리핑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만에 이례적으로 열렸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새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술집에서 주먹 다툼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보복을 위해 상대 조직원들을 추가로 폭행하는가 하면 무더기로 모여 패싸움을 준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PJ파’와 ‘충장OB파’ 조직원들로 상대편 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 당한 후 보복하는 과정에서 두 조직간 세력다툼으로까지 번졌다.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차량 7대에 나눠 타고 쇠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고 두 조직이 싸움을 위해 조직원들을 광주 시내 한 유휴지에 모으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된 10명은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구속된 조직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나서 새롭게 범죄단체에 가입한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검찰 수사장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파손하거나, 재판에서 특정 조직원이 유휴지에 없었다고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시험지 도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을 사흘 앞둔 14일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에 도착한 수능 문제지를 관계 공무원들이 보관창고로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만취한 20대 여성 성폭행 외국인 징역 1년6월 선고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외국인인 살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1시 20분께 순천의 한 공원 일대에서 피해자 B(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B씨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다니며 강제추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아 진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 장애인시설 방화범은 중증 지적장애인

북부경찰, 1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14일 광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중증 지적 장애인 A(17)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13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북구 지아동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4층 언어치료실에 있는 장풍속 이불에 라이터러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단순 호기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장애인 59명과 직원 6명이 대피했고, 화재는 발생한 지 27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자동화재소독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인명피해가 없고 빠른 진화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광주북부소방 관계자는 “자동화재소독설비가 정상 작동해 119상황실로 빠르게 신고가 접수됐다”며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해,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땀 불길도 잡혀 화재가 번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상가 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 ▶ 중심 상업지구
-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6억 8천

(보 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경매 물건 추천 ◀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평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평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평가 17억 → 최저가 12억

010-6670-9800

010-2614-9801